



#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현황과 과제

츠노가에 히로키 | 도우인요코하마대학교 교수

## I. 일본의 대학제도 개요

일본의 고등교육제도는 대학원,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專修學校)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학과 단기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입시 현황과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대학의 설치형태에 따라서 대학은 국가가 설치하는 국립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2003년 현재 대학 및 단기대학을 포함하여 국립대가 113개교, 공립대가 125개교, 사립대가 989개교이며, 사립대학의 구성비가 80%를 넘는다. 타당성의 유무를 떠나,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입학의 어려운 정도(難易度)에 따라 그 대학의 권위(威信)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입학의 어려운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공립대학은 도쿄대학교(東京大學)와 교토대학교(京都大學)를 정점으로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케이오대학교(慶応大學)와 와세다대학교(早稲田大學) 등 극히 소수의 대학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권

위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에 권위의 격차가 더 심하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국·공립대학은 국가·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보다 상당히 저렴한 학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학생의 수업료 수입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이루고 있다. 학생을 경영자원으로 생각할 경우, 이 재무구조는 입시문제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최근 국·공립대학은 국가의 구조개혁 일환으로 재편·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인화된다. 원칙적으로는 사립대학과 똑같은 입장이 되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경영단체로 독립채산이 요구되게 된다.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도 또한 어떤 형태로든 학생모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II. 18세 인구 감소와 대학입시

오늘날 일본의 많은 수험생에게 있어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시련 및 고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이다. 중간 수준 및 저 수준의 고등학교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학생은 취직을 하며, 중간 수준의 학생은 전문학교에, 그리고 장래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대학 및 단기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실제 필자가 학생모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보고 들은 현실이다. 통계상 2009년에는 대학입학정원 수가 대학지원자 수를 상회하게 되어 지원자 전원이 입학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현재에도 대학만 선택하면 실제로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많은 고등학생에 있어서 대학 문은 더 이상 결코 좁은 문이 아닌 것이다.

대학입시의 본질은 본래 입학지원자의 '선발'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선발 불가능한 상황의 전개와 학력선발(學力選拔)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입학시험 방법의 등장 및 수험시험의 복잡화가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그 자체의 전체상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일본 고등교육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설명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화·복잡화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학입시제도는 향후 일본의 대학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환경변화 가운데서 오늘날의 대학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18세 인구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감소이다. 1992년에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정점을 이룬 후, 약

10년간 50만 명이 감소하여 2003년도에는 약 150만 명으로, 나아가 2010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약 10년간에 25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급격히 18세 인구가 감소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에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15%에서 30%대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적 성장기에도 해당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진학률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생각된다.

최근 10년간의 18세 인구감소도 대학 진학률 상승을 초래했다. 2003년도의 대학·단기대학 진학률은 49%에 달하며, 전문학교 등의 진학을 합하면 60% 이상의 젊은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010년까지 더욱 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 이상의 대학 진학률 상승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가령 현재 이상의 대학 진학률 상승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더욱 감소하고 있는 학생확보를 둘러싸고 특히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의 수업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모집의 여부가 경영기반 그 자체에 직접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 있어서 대학입시는 입학자를 '선발'의 기회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방침에 적합한 학생을 '선택'하여 '고객'인 지원자의 능력 및 요구를 확인하고, 대학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

입학의 어려운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공립대학은  
 도쿄대학교(東京大學)와 교토대학교(京都大學)를 정점으로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게이오대학교(慶応大學)와 와세다대학교(早稻田大學) 등  
 극히 소수의 대학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의 권위구조를 이루고 있다.

”

### Ⅲ. 학력(學力)에 의한 입학자 선발

〈표 1〉은 2003년도의 국·공·사립대학별 선발방법에 따른 합격자 수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발방법의 다양화가 도모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학력에 의한 선발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과목시험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수험

일본에서 대학진학을 생각할 경우, 먼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국·공립인가 사립인가,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학과가 인문계인가 자연계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에 따라서

대학입시 방식과 대응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학지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국립 자연계, 국립 인문계, 사립 자연계, 사립 인문계로 학과 및 학급 편성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본고에서는 자연계와 인문계의 차이를 다루지는 않지만 양자간에는 수험과목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먼저 국·공립대학을 희망하는 경우, 연례적으로 1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대학입시센터 시험(센터시험)' 이라고 하는 '1차 시험' 을 치르고, 1개월 뒤에 각 대학의 각 학부·학과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2차 시험' 을 치러야 한다. 센터시험은 독립행정법인인 '대학입시센터' 가 주관하는 전국공통의 대학입학자 선발 시험인데, 1990년부터 실시하였다. 이것은

〈표 1〉 선발방법 차이에 따른 합격자 수 비교(2003년도)

	합격자 수	학력(일반)선발	특별선발(추천입시)	AO입시
국립대학	112,243명	98,379명(87.6%)	11,470명(10.2%)	1,214명(1.1%)
공립대학	31,337명	26,245명(83.8%)	4,504명(14.4%)	54명(0.2%)
사립대학	922,188명	679,978명(73.7%)	189,550명(20.6%)	24,801명(2.7%)

\* 출처 : 文部科學省, 『平成15年度國公私立大學入學者選抜實施狀況の概要』.

\*\* 주 : ( ) 안에 있는 것은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1979년부터 도입되었던 ‘공통1차시험(共通一次試驗)’을 전신으로 한 시험이다. 공통1차시험이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 비하여 센터시험은 사립대학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시험의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및 대학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험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2003년도 센터시험의 지원자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현 고등학생이 약 44만 명(70%), 고등학교 졸업생(재수생 등)이 약 16만 명(26%)이었다. 10년 전인 1993년도의 지원자는 약 51만 명이었고, 센터시험 도입 이후 지원자는 증가하고 있다. 시험 과목은 국어, 지리·역사, 공민, 수학, 과학(理科), 외국어의 6개 교과 32개 과목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부언하자면 2002년도부터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새롭게 한국어가 추가되었다. 첫 해 한국어 수험자는 전국에서 99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69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도의 한국어 시험 결과는 200점 만점에서 평균점수가 179점으로 나타났다.

센터시험은 객관식 학력 테스트이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센터시험에서 5개 교과 5개 과목 이상의 수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희망 학부·학과를 불문하고 수험생은 5개 교과 또는 그 이상을 배울 필요가 있도록 되어 있다. 수험생은 수험시에 해답을 문제 책자에 기입하고 시험 결과를 스스로 채점하여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치르는 대학·학부를 결정하여 원서를 제출한다. 원서를 접수한 대학은 대학입시센터에 센터시험의 시험 결과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2차시험 결과와 합산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는

다. 과도하게 지원자가 몰려 극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시험의 점수에 따라 2단계 선발을 실시한다. 이 경우 2차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1차서류심사에서 떨어지는 지원자가 생겨난다. 이 때문에 어떤 학생에게 있어서든 센터시험의 점수가 대단히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각 대학의 각 학부·학과에 따라 센터시험의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컨대 문학부에서는 국어 점수에 비중을 높게 둔다든지, 물리학과에서는 국어보다 과학 점수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등 차별적 점수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험을 치르는 대학을 결정할 때 이러한 점수배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2차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공립대학에서도 복수지원이 요구되어 종래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이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국립대학에서는 2차시험의 일정을 ‘전기일정’과 ‘후기일정’의 2회로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립대학의 경우는 ‘중기일정’이라고 하여 전기와 후기 사이에 시험일정을 설정하는 곳도 있으며, 과목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입시기회에 대해서는 최대 3회의 시험기회가 확보되어 있다. 전기일정과 후기일정의 모집인원 비율은 대개 7:3이다. 전기일정의 시험은 과목에 의한 학력시험을, 그리고 후기일정의 시험은 소논문 또는 개별면접 등의 비과목 시험에 의한 선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2차시험에서 치러지는 과목 수는 지원 학부·학과를 고려하여 2개 과목 또는 3개 과목으로 선정된다. 수험생은 센터시험에서 5개 교과 모두 폭넓게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 반면, 2차시험에서는 대학의 전공을 의식한

보다 심도있는 지식습득이 요구되게 된다. 통상 2차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식을 중심으로 한 필기시험이 중심을 이룬다. 자연계 과목의 경우 계산과정을 쓰도록 하며, 인문계 과목의 경우에는 사고과정 및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장 표현력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국·공립대학이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험생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기인한다.

## 2. 과목시험에 의한 사립대학의 수험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학력시험에 의한 수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의 사립대학은 대단히 높은 권위를 유지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학생모집에 곤란을 겪는 대학까지 실로 다양한 대학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학간 격차는 근래 수년간 급속히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며, 학생모집의 양상에 따라 대학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대학의 명성을 높여 가는 것이 그 다음의 학생모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구·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 측면에서도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가가 사립대학에게는 생명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미 학력에 의한 선발의 한계점이 노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존립기반을 연구·교육에서 찾으려고 하는 한 학력에 의한 선발의 의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목시험을 치르는 사립대학의 경우 각 대

학 각 학부·학과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회만 실시하는 시험에 의해 선발한다. 입시과목은 3개 교과 정도로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그 수가 적다. 동일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 다른 수험일정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과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동일 대학에 수차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 동일 학과라 하더라도 복수의 수험일정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수험전형료 수입도 귀중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부정확 수단을 통한 수험이 아닐 경우 수 차례의 수험을 인정하고 있다. 전형료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평균 약 350,000원(35,000円)이다. 수험생이 복수 대학을 지원할 경우, 그 수에 따라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오오테에비교(大手予備校; 우리나라의 입시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의 산정에 의하면 2개 국립대학과 2개 사립대학을 지원할 경우 전형료가 약 1,200,000원(120,000円)에 달한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오늘날 수험생의 복수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반수 이상의 사립대학이 센터시험을 이용한 선발을 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387개 대학 986개 학부가 센터시험을 이용하고 있다. 센터시험을 치른 후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에 대한 대응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2차시험으로 면접 또는 소논문 등의 시험을 치르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학력시험을 치르는 대학, 아무런 선발 시험도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사립대학은 센터시험을 이용함으로써 대학 측의 입시업무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종래와는 달리 폭

넓은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센터시험을 이용함으로써 대학의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 Ⅳ. 학력시험에 의존하지 않는 입학자 선발 : 특별전형

학력에 의한 선발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 전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어 항상 교육개혁의 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연유에서 국·공·사립대학 모두 특별전형(別選特拔)이라고 일컬어지는 학력시험에 의존하지 않는 입학자 선발을 실시해 왔다. 대학입학 기회의 공평성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선발방식의 의의는 크다고 보여진다. 특별전형에는 추천입학, 귀국자녀 특별전형, 중국 引揚子 등 자녀(전쟁 후(1945년 이후) 중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 자녀) 특별전형, 사회인 특별전형 등의 종류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각 대학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귀국자녀 및 중국 引揚子 등 자녀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 및 해외에서 취학한 중등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것이다. 사회인 특별전형에서는 학력이 아니라 실무경험 및 사회인으로서의 식견이 선발의 기준이 된다. 특별전형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추천입학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컨대 지정학교(指定校) 추천 및 자기추천, 스포츠 추천, 각 대학이 별도 실시하는 추천 등이 있다. 이하에서 추천입학제 중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지정학교 추천(공모추천)

앞에서 제시한 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국립대학 합격자의 약 10%, 사립대학 합격자의 약 20%가 추천입학에 의한 것이다. 대학이 특정 고등학교를 '지정학교'로 지정하여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고, 대학은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하는 선발방법을 지정학교(指定校) 추천이라고 한다. 다만 대학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대학 측으로부터 추천의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평정 평균치(중간·기말 정기시험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적표의 평가치를 말함.)가 제시된다. 이에 더하여 학생의 재학 중 성적과 담임교사의 소견이 기입된 조사서 등에 대해서도 서류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심사에 합격한 후 면접 및 소논문 등의 과제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각 고등학교에 주어지는 추천인원은 1~2명 또는 약간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 고등학교 내에서 주어진 추천인원을 둘러싸고 수 차례의 내부선발이 이루어진다. 권위가 높은 대학일수록 지정 고등학교에 요구하는 평정 평균치도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권위가 낮은 대학에서는 지정학교 추천의 형태를 띠면서 평정 평균치를 요구조건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고등학교가 학생을 대학에 추천하기 때문에 질 높은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 후의 학생이 평가가 높으면 다음 연도 이후에도 대학으로부터 지정학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학 실적을 축적한다는 관점에서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유능한 학생을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

“

학력에 의한 선발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어  
항상 교육개혁의 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연유에서  
국·공·사립대학 모두 특별전형(別選特拔)이라고 일컬어지는  
학력시험에 의존하지 않는 입학자 선발을 실시해 왔다.

”

가 강하다고 생각된다. 이 추천입학의 시기는 매년 9월경에 전형이 이루어지고, 12월경에는 합격자 발표가 있다.

## 2. 자기추천

지정학교 추천의 경우 학생을 대학에 추천하는 주체가 고등학교이지만, 자기추천의 경우는 수험생 자신이 대학에서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 이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대학 측이 조건을 제시하고 수험생이 스스로 이에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지정학교 추천과 같이 평정 평균치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자 자신의 의욕·관심을 평가한다. 또한 부활동(部活動) 및 클럽활동에서의 활약, 수상 경험, 직업자격의 유무, 외국어 검정 등의 취득 경험 등, 과외활동 및 사회적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에 실적을 쌓은 학생을 모집함으로써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경우도 대부분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선발하고 있다.

최근 추천입학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

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학력 선발이 이루어지는 1월부터 2월까지 공부하는 것을 기피하는 고등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도 있다. 오히려 그러한 취학태도가 일반 학생까지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학생모집이 어렵다는 증거를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더 정확한 것일지 모른다. 본래 학력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학생을 모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전형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할 것을 강제하는 일반입시보다 부담이 가벼운 입학통로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대학 측도 지원자의 취학 의욕과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V. AO 입시

AO란 Admission Office의 약어이다. 1990년도에 케이오대학교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을 시초로 점점 많은 대학이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입시제도이다. 2000년도에는 3개 국립대학, 1개 공립대학, 71개 사립대학에서 실시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17개 국립대학, 4개 공립대학,

316개 사립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AO 입시형태는 각 대학마다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제도이다. 추천입학과 마찬가지로 본래 학력편중의 선발기준 탈피 및 평가방법의 다양화와 입학자와 대학간의 보다 적절한 연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아직 AO 입시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미국 대학의 입학자 선발방법을 하나의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일본 대학에서는 미국 대학의 Admission Office와 같이 학생모집의 전문성을 갖춘 강력한 부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드물다. 일본의 AO 입시는 종래의 추천입시의 파생 형태로서의 측면이 강한 선발방법의 고안에서 실제 선발까지 대학교원이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도 종종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이 선발방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대학 측이 지원자의 입학의사와 대학에서의 학습능력 및 의욕을 확인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AO 입시에서 실시되는 면접은 지원자 자신의 발표도 포함하여 수 차례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 심층면접이 많으며,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을 확인한다. 지정학교 추천 및 자기추천과 다른 점은 입학지원자와 대학이 직접 수 차례에 걸친 면접을 실시하여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 전형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합격이 결정된 후에도 대학은 그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여 대학 준비교육을 행하는 기회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AO 입시는 종래의 추천입학제도보다 수험생과 대학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O

입시의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Ⅶ. 향후 동향과 과제

최근 일본 대학생의 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있기 이전부터 많은 대학교원도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저하를 실감해 왔던 바이다. 또한 경험상의 추측을 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학력에 있어서 대학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으며, 더욱 확대·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현상은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이 입학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선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권위가 높고 항상 많은 입학지원자가 몰리는 대학에서는 선발 성격이 강한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권위가 낮은 대학은 학력에 의한 선발보다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력문제와 병행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목적의식의 결여, 취학의욕 상실, 대학 결석, 중도퇴학 등 대학 입학 후의 학생 부적응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중등교육 단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그대로 고등교육 단계로 이월되는 형태가 생겨나고 있으며, 학생의 생활지도 등을 포함한 대응에 고민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높은 질 수준을 내세우기 위한 의미에서도 일부 대학에서는 입시과목을 늘려 선발성을 높인 학력시험을 행하는 대학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센



“

최근 일본 대학생의 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경험상의 추측을 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학력에 있어서 대학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으며,  
 더욱 확대·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현상은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이 입학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선발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테시험에서 5개 교과 6개 과목 이상의 과목을  
 부가하는 국립대학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  
 며, 일부 사립대학도 5개 과목 수험을 부가하  
 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일본  
 의 대학입시개혁의 흐름은 입시과목 수를 감  
 소시키는 방향을 거의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  
 지만,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는 형태의 입시과  
 목 ‘중량화(重量化)’는 많은 대학 가운데 나  
 림대로 어떤 류의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  
 이는 전략적 역할도 하고 있다.

학력에 의한 선발성을 높인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력에 의한 선발 등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 일본의 대학입시는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가고 있다. 그  
 러한 가운데 각 대학이 어떻게 구체적 성격에  
 따른 교육방침을 수험생에 호소하여 그것을 실  
 현시키기 위한 입학허가 정책[アドミッショ  
 ン・ポリシー]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각 대학의 창조성과 교육신념에 대한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영근**

**초노기에 히로키**

쓰쿠바대학교(筑波大學) 인간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도우인요코하마  
 대학교(桐蔭横浜大學) 교직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교육사회학·고등교육론·비교교육학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學生による授業評価導入の際の検討課題』, 『イギリスの一元  
 的高等教育システムにおける旧ポリテクニク大學』 등이 있다.

**정영근 譯**

동아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교(筑波大  
 學)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